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연구

류승아*
고려대학교

문화는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개인이 자아(self)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는 방식이나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배경에서 긍정적으로 지지되는 성향에 의해 확장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각 개인이 속한 사회의 우세한 문화성향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수평-수직/개인주의-집단주의의 4요인 문화성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이 우세한 문화성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상관관계의 타당성을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총 454명(224명의 한국 대학생과 230명의 미국 대학생)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이를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국가 모두 (1) 수평적 문화성향, 즉 수평-개인주의와 수평-집단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2) 높은 문화성향을 보인 수평 요인들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줌으로써 우세한 문화성향이 자아존중감과 의미있는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3) 요인들 간 상관관계는 구조 방정식 모델을 통한 적합도 지수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아존중감과 문화성향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시사점들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자아존중감, 문화성향, 수평-개인주의, 수평-집단주의

James(1892)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p. 54)이라고 정의하였다. Akande(2009)는 자신의 유능성을 평가하거나 또는 자아 확장의 전략 등은 감정적인 경험, 사고, 행동, 예측, 그리고 장기간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직관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자아존중감에 대

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렸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에는 동의하였다(Nagar, Sharma, & Chopra, 2008).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일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한편,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 교신저자: 류승아,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3290-1636
Email: ilcheu@gmail.com

주는 요인들이나 또는 그 기제를 알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Akande, 2009).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 우리의 심리적 기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져 오고 있다. Rosenberg(196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하였다. Nagar 등(2008)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며,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며 언제나 실패를 피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총체적 인식일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을 동기화하고, 해석하며, 중재하고, 조절하는 역동적인 정신구조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Kernis, 2005). 또한 자아존중감은 감정적인 문제나 행동적인 어려움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해 주기도 하고(Anderson, 1999), 물질, 낙관주의, 회복력, 그리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성공하는 것에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Bonanno, Field, Kovacevic, & Kaltman, 2002; Dahlin, Joneborg, & Runeson, 2008; Greenberg, 2008; King, 1997).

문화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기제를 알아내려는 여러 시도들 중 환경의 영향, 특히 문화적 맥락과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Akande, 2009; Sedikides, Gaertner, Toguchi, 2003; Tafadi, Lang, Smith, 1999; Yetim, 2003). 그렇다면 자아존중감과 문화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문화는 그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 개인에게 그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적절함, 좋음,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의 의미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인식시켜준다(Markus, Mullally, & Kitayama, 1997). 다시 말하면,

문화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Sedikides et al., 2003).

많은 비교문화 학자들은 개인이 자아(self)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는 방식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성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Markus & Kitayama, 1991). 문화성향을 규정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많이 사용되어온 분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Hofstede, 2001).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의 개념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정의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자아는 타인 또는 중요한 사회 조직에 동화되고 반영되며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한다(Markus & Kitayama, 1991). Cahoon(1996)은 북미, 서유럽, 오스트리아 등이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며, 이들 문화권에서는 독자성, 자아 유능성, 독특성, 사회적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타인과의 분리, 그리고 개인적 성공 등이 중요한 과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남유럽, 남미 등이 속하며, 이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화합, 협동, 타인과의 융합, 조직에서의 책임감, 자기 억제와 타인 배려 등이 중요한 가치 체계로 자리잡게 된다(Leung, 1997). 이러한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각 문화의 특성은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고(Church, 2000), 자아존중감 역시 자아 발달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형성되는 것이다(조궁호, 2003;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Triandis(1994)는 모든 인간은 사적(private), 공적(public), 그리고 집단적(collective) 자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자아가 강조되는 정도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의 사적(private)인 자아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아의 공적(public)이고, 집단적(collective)인 측면을 보다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Leary와 Baumeister(2000)는 어떤 종류의 자아존중감을 발전시킬 것인지(예를 들면, 지배적 분위기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관계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더 고양되는지)에 대

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이 겪는 주관적 경험이며, Sedikides 등(2003)은 이러한 주관적 경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 즉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이 속해있는 환경이나 맥락에서 지배적인 문화 성향과 부합하는 자아를 발달시킬 때, 개인의 자아존중감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문화적 맥락이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Yetim, 2003).

시대 변화에 따른 문화성향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성향의 변화는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류승아, 2009; 이정우, 2006; Chiou, 2001). 문화성향의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론이 도입된 초기에 집단주의로 분류되었던 한국의 문화성향이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류승아, 2009; 박현경, 이영희, 2004; 임희섭, 1994; 한규석, 신수진, 1999). 류승아(2009)의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의 개인주의 점수가 집단주의 점수보다 높았고, 더욱이 개인주의 점수의 수치는 미국 대학생들과의 비교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경과 이영희(2004)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20-30대의 연령에서 개인주의 성향, 구체적으로 수평-개인주의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등은 앞으로의 한국 문화를 완전한 집단주의 문화라고 단언하는 것에 대한 재고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hiou(2001)의 연구에서 미국이 타이완이나 아르헨티나보다 집단주의, 특히 수평-집단주의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류승아(2009)의 연구에서도 미국 대학생들의 집단주의 점수가 개인주의 점수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Riesman, Denney, 및 Glazer(1950)가 수직-개인주의로 분류했던 미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문화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화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문화성향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2요인으로 구분하던 방식에 대한 변화이다. 첫 번째 변화가 국가별 분류에 대한 변화였다면, 두 번째 변화는 개인

주의-집단주의 개념의 구조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Triandis, Leung, Villareal, 및 Clark(1985)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예를 들면, 같은 집단주의 배경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보이는 확연한 차이를 2요인으로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최상진, 1993). 또한 2요인 척도의 낮은 신뢰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Triandis, McCusker, & Hui, 199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은 수평-수직의 차원을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에 도입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4요인 개념을 구성하게 되었다.

Triandis와 Gelfand(1998)는 4요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평-개인주의 성향의 집단(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성원으로보다는 자율적인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과 경쟁적인 위치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이들은 자신이 집단의 성향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이기를 원하며 높은 자립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높은 지위를 지향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수평-집단주의 성향의 집단(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며 자신과 타인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한 장의 투표권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지위로 인한 위계, 사회적 권위의 획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집단의 공동 목표,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 의존성, 사회적 책임 등에 높은 가치를 두며, 가족, 부족, 국가 등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안녕과 기준이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삶의 가치가 집단에 복종되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직-개인주의 성향의 집단(사람)들은 자신의 독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즉,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남들과 비교하여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에게 경쟁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연법칙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쟁 상황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수직-집단주의 문화는 집단의 규준에 완전히 종속되어 극도의 상황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문화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위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에 의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며 집단내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

지금까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한유화, 정진경, 2007; Tafarodi et al., 1999), 수평-수직 차원이 결합된 4요인의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보다 정확한 문화성향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관계를 조망해 보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대학생 집단의 문화성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4요인으로 이루어진 수평-수직/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문화적 맥락으로 여겨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결과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문화성향의 양상, 문화성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등을 한국 대학생들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자아존중감과 우세한 문화성향들 간의 상관관계가 적합한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델 적합도 검사를 실시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자아존중감이 자신이 속한 문화적 배경에서 긍정적으로 지지되는 성향에 의해 확장되는 것이라면, 개인이 속한 국가나 문화적 맥락에서 우세한 문화성향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의 국가별 문화성향 구분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이 제기된 시점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수평-수직/개인주의-집단주의의 4요인 문화성향 구성개념을 사용하여 현재의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적 성향을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두 국가 모두 각 국가에서 나타난 보다 우세한 문화성향이 각 국가의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지 알아본다.

연구 문제 3. 연구문제 2에서 밝혀진 상관관계의 구조의 타당성을 모델 적합도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설문에 참가한 한국 대학생들은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224명이었고, 미국 대학생들은 미국 동남부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234명이었다. 미국 참가자 중 대학생 집단의 동질성을 저해할 수 있는 대학원생 4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미국 대학생의 수는 230명으로 결정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한국 대학생 집단이 20.91세($SD=2.18$), 미국 대학생 집단은 19.14세($SD=1.69$)로 나타났다. 나이의 범위는 한국의 경우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18-28세, 미국의 경우는 17-28세로 집계되었다. 학년별 분포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1학년(29.5%)과 2학년(35.3%)이 전체 65.9%를 차지하였고, 미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57.0%)과 2학년(27.4%)이 84.3%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인종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조사도 실시하였는데, 백인이 76.1%, 아시아인이 11.3%, 흑인이 5.7%, 다인종이 4.8%, 그리고 히스패닉이 2.2%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59.4%(한국)와 58.3%(미국)로 집계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학 수업 담당 강사의 도움으로 설문 조사 대상자들을 모집하였으며, 미국 대학생들은 설문지에 대한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친 후 심리학개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설문에 대한 사례는 두 국가 모두 설문 참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동일하였다.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개인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Rosenberg(1973)가 개발한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긍정 문항과 5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정 문항은 그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0개의 문항을 사용하기 앞서 문항간 상

관, 문항 총점 상관계수, 및 문항 제거시의 신뢰도 변화 결과를 분석하였다(부록 참조). 이러한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이차영 외(2009)의 연구에서 8번 문항(“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의 수정에 대한 강력한 제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생을 포함한 3,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을 통해, 8번 문항의 수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8번 문항의 경우 1, 2, 3, 4번의 문항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문항-총점 간 상관에서도 눈에 띄게 낮은 .17의 상관을 보였다. 문항 제거시의 신뢰도 계수 또한 8번을 삭제하였을 때 .83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8번 문항을 제거한 총 9문항으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9문항의 신뢰도는(Cronbach's α)는 .83(한국)과 .89(미국)의 수치를 보였다.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는 Singelis, Triandis, Bhawuk, 및 Gelfand(1995)에 의해 개발되었고, 한국은 김기범(1996)에 의해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개 문항으로써, 네 개의 하위그룹인 수평-개인주의, 수평-집단주의, 수직-개인주의, 그리고 수직-집단주의가 각 8문항씩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7점 척도로써(1:강하게 부정 - 7:강하게 긍정) 표시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수평-개인주의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에게 의존한다”, 또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등이 있으며, 수평-집단주의 문항으로는,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또는 “나는 이웃과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을 즐긴다” 등이 있다. 수직-개인주의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 보다 어떤 일을 못한다면 기분이 언짢다”, 또는 “경쟁없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등이며, 수직-집단주의 문항의 예로는,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 또는 “내가 속한 집단들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 집단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수평-개인주의 .82, 수평-집단주의 .78, 수직-개인주의 .77, 그리고 수직-집단주의는 .71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 집단은 수평-개인주의 .79, 수평-집단주의 .80, 수직-개인주의 .82, 그리고 수직-집단주의는 .71을 보여주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의 사전 단계로 시행한 결측치 처리는 SPSS 16.0을 사용하여 Expectation Maximization (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6.0을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의미 있는 문화성향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조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사용하는 잇점은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관관계 전체 구조의 적합도 및 타당도를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분석으로는 할 수 없었던 측정오차 통제를 통해 보다 순수한 구성 개념들에 의한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구조방정식 모델은 AMOS 16.0을 사용하여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 과

문화성향 분석 결과

표 1은 두 국가의 문화성향 4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두 국가의 차이검증의 결과이다.

문화성향 하위요인에서는 한국의 경우, 수평-개인주의($M=5.41$, $SD=.82$)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인 성향은 수평-집단주의($M=4.91$, $SD=.86$), 가장 낮은 성향은 수직-집단주의($M=4.67$, $SD=.82$)로 나타났다. 또한 수평-개인주의의 점수가 다른 세 하위요인에 비해 확연히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머지 하위요인들 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평-개인주의($M=5.38$, $SD=.87$)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두 번

표 1. 한국과 미국의 문화성향 척도 하위요인들의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분석 결과

문화성향 하위요인	평균(표준편차)		t (df=452)
	한국(n=224)	미국(n=230)	
수평-개인주의	5.41 (.82)	5.38 (.87)	.40
수평-집단주의	4.91 (.86)	5.24 (.90)	-3.91***
수직-개인주의	4.80 (.93)	4.04(1.08)	8.06***
수직-집단주의	4.67 (.82)	4.54 (.96)	1.58

*** $p < .001$.

제는 수평-집단주의($M=5.24, SD=.90$),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하위요인은 한국과는 달리 수직-개인주의($M=4.04, SD=1.08$)로 나타났다. 두 국가 모두 '수평'의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수직'의 하위요인들의 점수보다 높으므로 두 국가 대학생들 모두 수평 개념에 해당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인별 차이에 대한 두 국가의 비교 분석(t -test)을 살펴보면, 수평-개인주의와 수직-집단주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평-집단주의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대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성향을 나타내었다, $t=-3.01, p < .001$. 또한 수직-개인주의의 경우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t=8.06, p < .001$.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문화성향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성향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 문제 2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성향 하위요인들 간

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수평-개인주의($r=.39, p < .001$)와 수평-집단주의($r=.33, p < .001$)에서 유의미하게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수직-개인주의와 수직-집단주의는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수평-개인주의와 수평-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역의 해석도 가능하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수평성향의 문화적 가치를 가진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문제 1의 결과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수평-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수평-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 문제 2에서 제시한 문화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증명되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수평-집단주의($r=.23, p < .001$)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수평-개인주의($r=.17, p < .01$)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수평-개인주의와 수평-집단주의

표 2. 한국과 미국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성향 하위요인들과의 상관 결과

자아존중감	문화성향			
	수평-개인주의	수평-집단주의	수직-개인주의	수직-집단주의
한국	.39***	.33***	-.01	-.02
미국	.17**	.23***	-.07	.04

** $p < .01$, *** $p < .001$

성향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비록 미국 대학생들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은 두 번째로 높은 성향인 수평-집단주의에서 보여주었지만, 두 수평 요인 성향들의 점수 차가 근소하다는 사실과 자아존중감이 수평-개인주의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므로 연구 문제 2의 예상을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수직-개인주의와 수직-집단주의는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아존중감은 두 국가 모두 수평-개인주의와 수평-집단주의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수평-개인주의와 수평-집단주의는 두 국가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은 문화적 성향으로 나타났음을 기억할 때, 연구 문제 2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던 우세한 문화성향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화성향과 자아존중감의 구조 분석 결과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두 국가 모두 수평-개인주의와 수평-집단주의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문화성향이었고, 이러한 두 요인은 각 국가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단계에서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들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에 사용된 척도는 자아존중감 문항들과 수평-개인주의, 수평-집단주의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수직-개인주의와 수직-집단주의는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구조 방정식 모형 구성에는 제외하였다. 그림 1은 이러한 가정으로 만들어진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수평-개인주의, 수평-집단주의와의 관계는 측정 오차를 고려한 후에도 첫 번째 분석 결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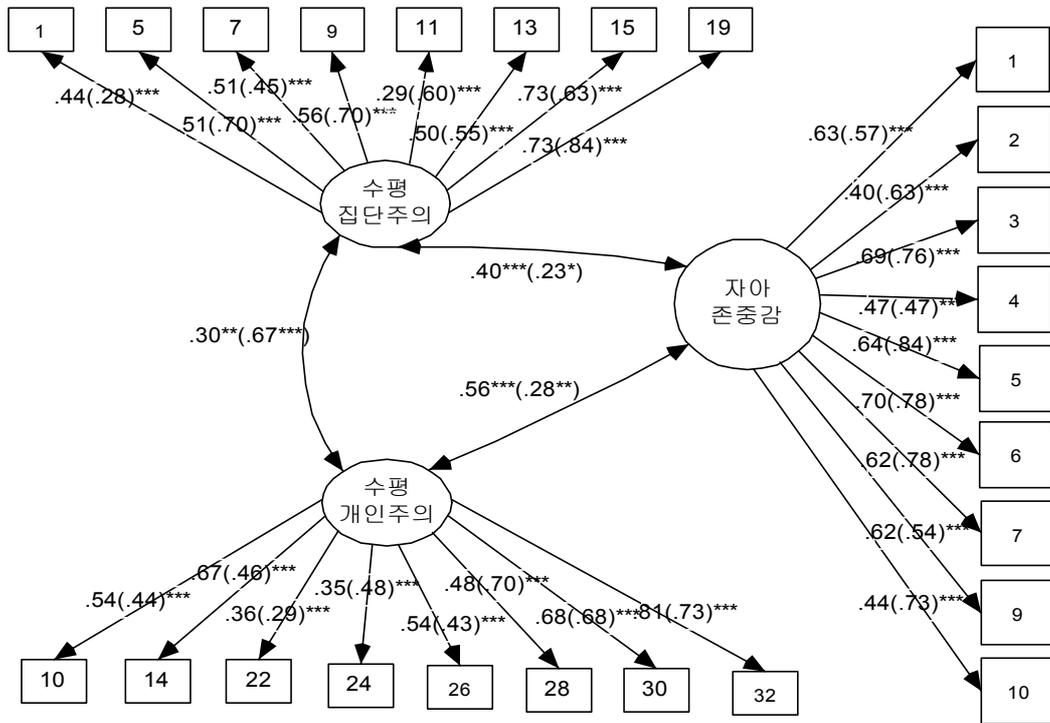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자아존중감과 수평-개인주의/수평-집단주의 모형
 주.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다. ()숫자는 미국 대학생집단으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측정 변수의 숫자는 문항의 번호를 뜻하며 회귀 계수 유의도는 두 국가 모두에 적용되는 결과이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한국과 미국의 구조모델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한국	450.13***	257	.89	.87	.06
미국	391.18***	257	.94	.93	.05

주.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표준화된 상관 계수는 자아존중감과 수평-개인주의 사이에서는 .56($p < .001$), 수평-집단주의와는 .40($p < .001$)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자아존중감은 수평-개인주의와 .28($p < .01$), 수평-집단주의와 .23($p < .05$)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수평-개인주의/수평-집단주의 성향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델의 적합도 확인을 위해 χ^2 ¹⁾, CFI (Comparative Fit Index)²⁾, TLI(Tucker-Lewis Index)³⁾,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⁴⁾의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표 3은 두 국가에 적용된 모델의 적합도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과 미국 모두 적절성의 검증에 있어 기각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두 국가 모두 χ^2 의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χ^2 의 값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Anderson & Gerbing, 1988), 표본 크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적합도 지수인 TLI, CFI, 및 RMSEA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홍세희, 2000). CFI의 경우에는 한국이 .89, 미국이 .94를 나타내었고, TLI는 각각 .87과 .93, RMSEA는 .06과 .05를 보여주었다. 비록 한국 집단의 경우 CFI와 TLI의 적합도가 조금씩 낮은 수치를 보이는 하였으나, 적합도 검증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지 절대치의 기준은 아니다(이학식, 임지훈, 2008). 그러므로 미미한 차이의 수치는 적합도 기준을 벗어난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 자아존중감과 수평-개인주의, 수평-집단주의의 상관관계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 모델의 적합성에 있어 타당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성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수평-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수평-개인주의 성향이 다른 성향보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논의해 볼만한 결과이다. 더욱이 다른 세 요인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 대학생들의 수평-개인주의 성향의 우세함을 강조하여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이러한 강한 개인주의 성향,

- 1) χ^2 통계량은 가장 대표적인 절대 적합도 지수로서 입력 자료와 평가된 이론적 모델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어 준다. 이 지표는 자유도와 p 값을 함께 산출하여, p 값이 유의미하다면 적합도가 낮다고 결론지어지게 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χ^2 의 값이 커지게 되므로, 그럴 경우 유의미한 p 값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적합도가 낮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적합도 지표들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이학식, 임지훈, 2008).
- 2) CFI는 모형의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이며,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 3) TLI는 NNFI(Non-Normed Fit Index)라고도 하며, 제안모델과 기초모델의 비교와 모델의 간명도를 결합하여 측정된 것으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지표이다.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 4) RMSEA는 χ^2 통계량의 한계적인 표본의 크기에 따른 유의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χ^2 의 값을 자유도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된 값이다. 대체로 .08보다 낮으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8).

특히 수평-개인주의 성향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류승아, 2009; 박현경, 이영희, 2004;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규석과 신수진(1999)의 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의 성향이 수평-개인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박현경과 이영희(2004)의 연구에서도 20-30대의 참가자들은 수평-개인주의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개인주의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통해 형성되는 특성으로 비약적인 경제 도약의 상황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만,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수직-개인주의의 성향보다는 수평-개인주의의 성향이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다(이정우, 2006; Singelis et al., 1995). 현실에서의 한국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보인 수평-개인주의의 성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결과들임에 틀림없다. 또한 수평-개인주의의 성향이 자율적 개인, 타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활동, 독특한 존재 및 높은 자립성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요즈음의 한국 대학생들의 특성과 유사한 성향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학생들에게서도 문화성향의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수평-개인주의와 수평-집단주의의 성향이 우세한 반면, 수직-개인주의의 점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미국을 더 이상 개인주의의 문화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Chiou, 2001)들이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개인주의, 특히 수직-개인주의의 성향의 문화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미국 대학생들의 문화성향이 실제로 수직-개인주의의 성향에서 벗어나 다른 성향으로 빠르게 전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의 환경적 맥락이나 표집 당시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였기 때문인지는 계속되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사회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으므로, 문화성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연구자들에 의한 문화성향의 변화와 그와 관련한 다양한 심리적 기제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본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 맥락에서 보다 우세한 문화성향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근거는 개인이 속한 문화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될 때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들(Markus & Kitayama, 1991; Heine et al., 1999)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록 미국 대학생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성향으로 나타난 수평-집단주의 요인과 보다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지만, 수평-개인주의와 수평-집단주의의 성향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문화의 입장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개인의 환경적 맥락, 즉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권이나 상황에서는 확장되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요즈음 부쩍 늘어난 해외 조기 유학이나 이민, 반대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 이주민들의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중요한 심리적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수평성향의 문화적 맥락에서 확장되고 지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미국 문화권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성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평적 문화성향인 수평-개인주의/수평-집단주의와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다른 사람과 경쟁적인 위치가 아닌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지위로 인한 위계나 사회적 권위에 의한 강압 등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일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 중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이 강한 수평적 성향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고, 구조 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 문화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수평적인 사회 분위기나 수평성향의 개인에게서 보다 잘 형성되며, 양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수평적 성향의 문화적 분위기나 배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사고로만 자아존중감과 상관성을 연구해왔던 기존의 틀에서 수평-수직의 개념을 접합시킴으로서 자아존중감과 문화성향의 관계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수평-수직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성향의 연구에 있어 수평-수직 개념을 도입한 4요인 구성개념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문화성향에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요인만큼이나 수평-수직의 요인 또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Gouveia, Clemente, 및 Espinosa(2003) 또한 수평-수직 성향이 정체성이나 대인관계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평-수직 요인을 포함한 다면적 구성의 문화성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연구들(Heine et al., 1999; Markus & Kitayama, 1991; Sedikides et al., 2003; Yetim, 2003)이 보여준 자아존중감은 개인주의 집단(사람)에게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결과들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자아존중감과 문화성향의 관계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만으로 상관관계를 연구해 왔던 문화비교의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평-수직 성향을 포함한 4요인 구성개념의 사용은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문화성향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및 행동적 양상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음의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가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문화 비교 측면을 연구하였지만, 응답자들이 두 국가의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모집되었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양국 대학생들이 보여주는 유사한 양상, 즉 강한 수평성향의 표출이 환경적 맥락에 의한 문화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대학생이라는 집단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강한 수평성향이 고등교육으로 인한 결과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연구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비슷한 성향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두 집단 모두 수평성향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상관을 가진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과 문화성향과의 기제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성향이 강한 집단(예를 들면,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들 사이의 위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부가적으로 실시하여, 이들 집단에서 우세한 수직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면,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우세한 문화성향과 자아존중감의 정적 관계에 대한 결론을 보다 강하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절차를 통해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함을 명백히 해 둔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한유화와 정진경(2007)은 자아존중감의 내용을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특성(성취, 경쟁에서의 승리, 상대적 우월감)과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치(노력, 타인의 인정, 대인관계)로 나누었을 때 한국인들은 집단주의 내용에 해당되는 자아존중감의 문항들에 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자아를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분리된 자아(separated self)외에 두 자아가 잘 융합된 제 3의 자아도 있음을 주장하였다(Kagitcibasi, 1997).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들이 수평-개인주의의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가져봐야 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척도 또한 여러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문화성향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본다면 보다 다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 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류승아 (2009).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1-25.
- 박현경, 이영희 (2004).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571-596.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정우 (2006). 탈북 청소년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13(2), 159-185.
- 이학식, 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AMOS 16.0. 서울: 법문사.
- 임희섭 (1994). 한국사회의 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조근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 틀. 서울: 나남출판.
- 조근호 (2005). 문화성향에 따른 유사성 판단과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45-63.
- 최상진 (1993).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대외심포지움, 1993(3), 3-21.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유화, 정진경 (2007).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17-13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 황매향, 이은실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Akande, A. (2009). Comparing social behaviour across culture and nations: The 'what' and 'why' question. *Social Indicator Research*, 92, 591-608.
- Anderson, C. A. (1999).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loneliness: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482-499.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onanno, G. A., Field, N. P., Kovacevic, A., & Kaltman, S.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hoone, N. (1996). *History of the Western mi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iou, J. S. (2001).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Taiwan, and Argentina.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 667-678.
- Church, A. T. (2000). Culture and personality: Toward an integrated cultural trait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68, 651-703.
- Dahlin, M., Joneborg, N., & Runeson, B. (2008). Performance-based self-esteem. *Teacher*, 29, 43-48.
- Gouveia, V. V., Clemente, M., & Espinosa, P. (2003). The horizontal and vertical attribut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a Spanish popul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3, 43-63.
- Greenberg, J. (2008). Understanding the vital human quest for self-esteem.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48-55.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 653-663.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James, W. (2005). 심리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psychology*](정양은 옮김). 서울: 아카넷(원전은 1890에 출판).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pp. 1-49). Boston, MA: Allyn and Bacon.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 1-37.
- King, K. A. (1997). Self-concept and self-esteem. *Journal of Health, 67*, 2-5.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2, pp. 1-6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eung, M. (1997). Negotiation and reward allocation across cultures. In P. C. Earley & M. Erez (Eds.), *New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pp. 640-675). San Francisco: Lexington.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Mullally, P., & Kitayama, S. (1997). Selfways: Diversity in modes of cultural participation. In U. Neisser & D. A. Jopling (Eds.), *The conceptual self in context: Culture, experience, self-understanding* (pp. 13-6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gar, S., Sharma, S., & Chopra, G. (2008). Self-esteem among rural girls. *Anthropologist, 10*, 151-154.
- Riesman, D., Denney, R., & Glazer, N. (1950). *The lonely crowd: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0-79.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afarodi, R. W., Lang, J. M., & Smith, A. J. (1999). Self-esteem and the cultural trade-off: Evidence for the ro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620-640.
- Triandis, H. C. (1994).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41-51). Thousand Oaks, CA: Sage.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Yetim, U. (2003). The impact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esteem, and feeling of mastery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turkish university students and academicia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 297-317.

Correlational Structure of Self-esteem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eungah Ryu

Korea University

Culture makes an important role on psychological developments and function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self-esteem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revalent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e context. The improvement of our self-esteem could relate the value of the context we live. This study examined the 4 cultural characteristics (horizontal-vertical/individualism-collectivism) from the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U.S., and then looked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224 Korean and 230 American college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findings demonstrated both countries showed (1) that horizontal-individualism and horizontal-collectivism had higher scores than vertical things; (2) that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two horizontal factors were found; (3) that SEM from each country was confirmed appropriate goodness-of-fit structures. Research findings woul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self-esteem concepts and provide various perspectives of the relations between culture and self-esteem.

Keywords : self-esteem, cultural characteristics, horizontal individualism, horizontal collectivism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3월 7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5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5월 29일

부 록

자아존중감 문항 간 상관과 문항 총점 상관계수 및 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의 결과

문항 번호	문항 간 상관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Cronbach's α
	1	2	3	4	5	6	7	8	9	10		
1		.27***	.36***	.30***	.40***	.50***	.43***	.12	.38***	.22***	.54	.79
2	.70***		.14*	.25***	.16*	.32***	.25***	-.09	.16*	.25***	.29	.81
3	.46***	.49***		.30***	.50***	.47***	.44***	.12	.50***	.30***	.59	.78
4	.41***	.54***	.43***		.29***	.27***	.18**	.04	.29***	.27***	.38	.81
5	.49***	.53***	.64***	.37***		.41***	.40***	.15*	.40***	.33***	.56	.79
6	.48***	.52***	.58***	.45***	.62***		.67***	.23***	.47***	.24***	.67	.77
7	.44***	.42***	.56***	.35***	.66***	.75***		.19**	.49***	.26***	.62	.78
8	.24***	.28***	.48***	.20**	.50***	.50***	.53***		.17*	.11	.17	.83
9	.23***	.23***	.46***	.19**	.44***	.47***	.47***	.56***		.49***	.63	.78
10	.34***	.38***	.58***	.26***	.61***	.60***	.62***	.59***	.71***		.45	.80
문항총점 상관계수	.53	.58	.72	.44	.75	.77	.75	.62	.61	.75		
문항제거시 Cronbach's α	.89	.89	.88	.90	.88	.88	.88	.89	.89	.88		

대각선의 오른쪽 위부분은 한국 대학생의 결과이며 대각선의 왼쪽 아래부분은 미국 대학생의 결과이다.
* $p < .05$, ** $p < .01$, *** $p < .001$

